

부 속 의 원 ‘변’



해태제과부속의원
보건담당자

조 혜 영

똑똑똑똑 ……………

문두드리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간호원실까지 요란하다. - 7년의 경험에 비추어-틀림없이 신입사원이거나 외부손님일 것이다. 대답다운 대답을 듣지 못한 노크 소리의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 놓으며 그의 눈은 남자입원실, 여자입원실, 주사실, 간호원실겸 투약실, 치료실, 진찰실 등의 팻말을 따라 가며 더욱더 커진다. 그리곤 예기치 못한 광경에 충격을 받은 듯 그의 호기심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부속의원이란 입구 표지가 있지만, “의무실이 무척 크고 잘 정돈 되었군요. 입원 환자도 있습니까? 그리고 치료도 해주고 약도 줍니까” “물론이죠. 이 곳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원은 입원도 할 수 있고 약은 물론 치료도 받을 수 있지요. 그것도 모두 무료입니다.”란 나의 대답에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아주 좋겠습니다. 부럽군요.”하며 이 방문객은 자신의 용무도 잊은채 고개만 끄덕 거리고 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이 덜 되었거나, 그 시간에 간밤의 설친 잠을 보충한 것 같은 신입사원이 내원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생각이

아예 얇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듯 입시로 약 먹기를 원하거나, 물론 자신이 처방한 것으로 진료를 받고 나서는 지갑을 뒤적이며 약값이나 치료비를 벌려고 하든가, 아니면, 급여에서 공제하는지를 묻곤 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나는 야릇한 당혹감과 함께 누구에겐지 모를 분노를 느낀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다루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과 건강관리자, 더 나아가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의무와 권리를 저버린 무지한 근로자에 대해서 일게다. 회사의 의무실을 사원들은 불신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창고 같은 구석진 방에 형식적으로 약장이나 침대를 두고 자격있는 의료인 한 명 없이 의무실입네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고용주는 돈을 벌기에 바빠서, 근로자는 너무나 무지해서 건강을 외면해 왔다지만, 늦은 감은 있으나 소신있는 의료인들이 산업보전에 뛰어 들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살피주어야 할 때가 왔고 또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줄 알고 회사에 충실 하려고 하는 사원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을 친형제처럼 아껴 줄 수 있는 건강관리자, 그리고 그 모두를 아낌없이 뒷바침 해 주는 든든한 회사, 이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13년 이상 묵묵히 이곳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살피 주고 계시는 어머니님 같은 원장님(보건관리자)을 모시고 있는 이곳 근로자들은 행운아들이다. 나 또한 건강관리 보건담당자로서 그 분을 모시고 일할 수 있었음을 늘 감사드리며 생활하고 있다. '86년 새해를 맞아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로 부족함이 많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근로자들이 진정 그들의 건강을 맡기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건강 언니”가 될 것을 다짐해 본다.